

(2017. 4. 8 시행) 국가직 9급 기출문제 [국어 : (마) 책형]

[안 한 섭 선생님]

(중앙로/충남대) 제일고시학원 / www.okpass.com

(※ 기출문제는 문제가 공개되면 첨부하여 게시할 예정입니다.)

1. ③

해설: 구지가를 해석하면, “거북아 거북아(부름/환기) 머리를 내어라(명령/요구) 내놓지 않으면(가정/조건) 구워서 먹으리(위협/협박)”이다. 따라서 3번이 적절하다.

2. ④

해설: 화자는 “슬픔을 펴다 버린다, 삽자루에 맡긴 생애가 저물고,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말들로 돌아가야 한다”라고 했으므로 주관적 감정을 배제하지 않았고, 해 지는 강가의 풍경을 “셋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뜬다,” “우리가 저와 같다.”라고 했으므로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.

3. ②

해설: 낭중지추(囊中之錐)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,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짐을 이르는 말이다. 따라서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.

[오답 해설]

오월동주(吳越同舟):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, 서로 적대시하는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탔으나 풍랑을 만나서 서로 단합하여야 했다는 데에서 유래한다

마이동풍(馬耳東風): 동풍이 말의 귀를 스쳐 간다는 뜻으로,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림을 이르는 말.

근목자흑(近墨者黑): 먹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뜻으로,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

4. ②

해설: 여달이는 ‘대전에서 옥자’를 어린애처럼 생각이 깊지 않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, 등에 얽힌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볍다고 했다.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.

5. ③

해설: <보기>의 고치다는 “고장이 나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손질하여 제대로 되게 하다.”라는 뜻이다. 따라서 3번이 적절하다.

[오답 해설]

- ① 본디의 것을 손질하여 다른 것이 되게 하다.
- ② ④ 이름, 제도 따위를 바꾸다.

6. ①

해설: 시망스럽다는 형용사로,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는 뜻이다.

2017. 기출문제 해설

7. ②

해설: 강기침은 ‘마른기침’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다. 이때 ‘강-’은 (몇몇 명사 앞에 붙어)‘마른’ 또는 ‘물기가 없는’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.

[오답 해설]

나머지 강행군, 강타자, 강염기는 ‘매우 센’ 또는 ‘호된’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인데 ‘強-’으로 적는 한자어이다.

8. ②

해설: ‘오래 붙은 국수’에서 ‘붙은’은 기본형이 ㄷ불규칙을 하는 ‘붙다’이다.

9. ③

해설: 시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, 공간적 배경인 푸줏간 역시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.

10. ④

해설: 마지막 문장에서 “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.”라고 했으므로 말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한 4번은 적절하지 않다.

11. ②

해설: 이 시에서 ‘공주’는 근대 문명의 냉혹함을 모르는 존재로 나와 있다. 나약한 나비의 의지 부족이나 방관적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.

12. ②

해설: <보기>에서 당대 사회의 모순이나 부조리 등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여 그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고 했다. 따라서 황금광 시대를 비판하고 있고, 그에 편승한 금광 브로커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서술자의 예찬 대상이라고 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.

13. ④

해설: 일후 풍진(風塵) 중에 너를 다시 찾으리라는 이후에 어지러운 일이 생기는 중에 너를 다시 찾겠다는 것으로 복선을 암시한다. 이후 주인공이 전쟁에 참여하여 활약한 후 다시 찾으러 올 것을 암시하는 말이므로 ‘남약산 신령’이 후일 천상 세계로 복귀한다고 한 것은 거리가 멀다.

14. ④

해설:

설명(說明):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방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함. 또는 그런 말.

묘사(描寫): 어떤 대상이나 사물, 현상 따위를 언어로 서술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함. ‘그려냄’으로 순화.

서사(敍事):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실(사건)을 있는 그대로 적음.

논증(論證): 옳고 그름을 이유를 들어 밝힘. 또는 그 근거나 이유.

[오답 해설]

묘사(猫鯨)는 ‘괭이상어’라는 동물 이름이다.

서사(徐事)는 태봉에서, 광평성의 둘째 벼슬. 고려의 시랑(侍郎)과 같다.

논증(論症)은 병의 증세를 논술함.

15. ③

해설: 잠갔다는 기본형이 '잠그다'이므로 으탈락(규칙 활용)을 하는 용언으로 잠갔다로 쓰는 것이 맞는 말이다.

[오답 해설]

- ① 병이 '나은' 것의 기본형은 '낫다'로 스불규칙을 하는 단어이다. 따라서 '나았다'로 적어야 한다.
- ② '넉넉치'는 안울림 소리 뒤에 나왔으므로 '넉넉지'로 써야 한다.
- ④ '이어서'는 기본형이 '잇다'이므로 '이어서'로 써야 한다.

16. ④

해설: 훈민정음 28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순경음 비읍(병)이다. 순경음 비읍(병)은 연서법, 즉 이어쓰기에 해당한다.

17. ④

해설: 본래 '중(中)'이 ~하는 동안, ~가운데의 의미이면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. 그러나 '무의식중, 부재중, 은연중, 한밤중'은 예외이다.

[오답 해설]

- ① '안된다'로 붙여 써야 한다. '일, 현상,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'의 의미이기 때문이다.
- ② '시간 만에'로 띄어 써야 한다. '만'이 '경과한 시간'의 의미이면 의존명사이기 때문이다.
- ③ '잘할뿐더러'로 써야 한다. '-르뿐더러'는 붙여써야 하는 어미이기 때문이다.

18. ①

해설: 작열(灼熱), 형극(荊棘), 오한(惡寒)으로 읽어야 한다.

19. ①

해설: 유음이 아니고 비음이다.

20. ②

해설: 선택지를 보면 모두 (가)로 시작됨을 알 수 있다. (나)는 (가)를 인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, (라)는 (나)에서 언급한 '혜시(惠施)'를 부연하는 역할을 하므로 (라)는 (나) 뒤에 와야 한다.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.